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패션 표현유형 분석

정선화⁺ · 정현주^{*}

동신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 혜천대학 코디네이션학부 강사^{*}

Characteristic to Express Maximalism Fashion Appearing in Fashion Collection

Sun-Hwa Jeong⁺ · Hyun-Joo Jung^{*}

Lecturer, Dept. of Costume Design, Dongshin University⁺

Lecturer, Dept. of Coordination, Hyecheon College^{*}

(2009. 1. 28. 접수; 2009. 2. 16. 수정; 2009. 2. 19. 채택)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basic principle of “Maximalism” fashion and analyzed the properties of fashion types with found the frequencies of various styles and design factors of “Maximalism” fashion in collection.

The limits of this study is from 2001, s/s, maximalism was embossed in a modern fashion, to 2007, f/w, and collected the fashion collection pictures from www.samsungdesign.net and www.style.c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 style of “Maximalism” design showed in International fashion collection was “exaggerated style.” Second, the design factors of “Maximalism” fashion were also examined. In case of silhouette, “hourglass silhouette” was the most frequent silhouette. In case of pattern, “solid” color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In case of materials, the soft materials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Third, the frequencies of design factors of maximalism by presentation types was compared and analyzed. In case of expansion, “bulk silhouette” was the most frequent silhouette to be appeared, and about multi-ethnic, futurelism, and elegance, “hourglass silhouette” was frequent appeared. In case of pattern, “solid” color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in all types. In case of materials, the hard materials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in expansion, multi-ethnic and futurelism.

“Maximalism” fashion which is most splendid trend would grow up rapidly in the modern fashion market and influence on the other fashion trend in our every day life. Consequently, this research can be referred as practical information in fashion marketing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future fashion research as well.

Key Words: Maximalism(맥시멀리즘), Exaggerated(과장성), Hourglass silhouette(아우어글래스 실루엣)

Corresponding author ; Sun-Hwa Jeong

Tel. +82-61-330-3376, Fax. +82-41-850-8301

E-mail : modash@naver.com

I. 서론

패션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 가치관을 표출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다. 그래서 패션은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거울이며 역동적인 순환을 조정하는 활력소가 된다.¹⁾ 패션 디자이너들은 낭만적이고 풍요로운 장식과 재미와 유머를 추구하는 요소들을 디자인에 도입함으로써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에 몰입하였고 그 특징을 새천년의 패션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²⁾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해체적인 경향과 더불어 또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이 등장하였다. 또한 과거 회귀적인 요소와 최첨단의 요소들이 서로 공존하는 새천년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최근 맥시멀리즘의 양식이 표출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미니멀리즘에 싫증난 패션디자이너들은 과장된 장식과 재미를 추구하는 맥시멀리즘 패션을 다루게 되었다.

<더 많은 것이 더 많다> 또는 <큰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적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맥시멀리즘은, 미니멀리즘과는 모든 면에서 대조된다.³⁾ 1990년대 이후의 패션은 대체로 미니멀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미니멀리즘은 낭만적이고 풍요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새천년 사회분위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1990년대의 대표적 패션경향인 미니멀리즘에 싫증난 새천년 패션 디자이너들은 과장된 장식과 재미를 추구하는 맥시멀리즘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⁴⁾ 맥시멀리즘 패션은 외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흐름으로써 내적인 다원성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와 미래의 복합적이고 융합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맥시멀리즘 패션에 관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컬렉션, 패션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진자료를 수집한 후 패션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추출된 실물 사진자료를 토대로 맥시멀리즘의 패션의 표현유형과 디자인요소의 출현빈도와 변화추이를 알아보고,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유형별 디자인요소의 출현빈도와 변화추이를 알아봄으로써 패션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맥시멀리즘이 현대 패션분야의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2001년 S/S부터 2007년 F/W까지의 컬렉션 사진들을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삼성디자인넷 (www.samsungdesign.net)과 스타일닷컴 (www.style.com)에서 수집하였다. 사진자료 수집 범위를 2001년부터 2007년까지로 정한 이유는 1990년대의 트렌드였던 미니멀리즘 (minimalism)이 21세기를 들어서면서 반대적인 분위기로 그 추세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맥시멀리즘(maximalism)의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온 시기이기 때문이다.

II. 맥시멀리즘 (Maximalism)패션의 이론적 고찰

1. 맥시멀리즘의 개념과 발생 배경

맥시멀리즘은 ‘가장 효과적인[완전한]; 최고의, 최대한의, 극대의’의 뜻을 지닌 미니멀(minimal)의 반대로 맥시멀(maximal)⁵⁾에 ism의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단어로 최대주의, 극대주의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맥시멀리즘이란 용어는 2000년대가 되면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디자인 관련기사 등에서 언급 되었고 음악, 그래픽과 건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⁶⁾ 미니멀리즘이 축소 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맥시멀리즘은 확대 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감성에 충실하고 과거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경향으로 의복의 여러 요소와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⁷⁾

맥시멀리즘에 관해 과거속의 신화적인 요소들을 모아 시적인 우아함과 신비스러운 로망티시즘으로 탄생시키고, 20세기 말의 퇴폐주의적인 감성을 동원해서 극단적이고 도발적인 리치니스(Richness)라던가 당당하게 들어내는 럭셔리(Luxury)함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 경향이라고 하였다. 시즌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전통적인 분위기에 고품격의 엘레강스함이 더해지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럭셔리

리(Luxury)에 대한 요구, 보다 서정적인 분위기로 변화된 로맨티시즘, 그리고 이 모든 요구를 충분히 표현해주고 있는 수공예적인 요소들은 이제 21세기에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⁸⁾

맥시멀리즘 패션을 탄생시킨 사회문화적 배경을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컴퓨터와 정보통신혁명을 주축으로 한 세계화와 지역화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인 글로벌리즘을 들 수 있다. 세계통합주의(Globalism)와 지역중심주의(Localism)가 결합해 탄생한 새로운 개념의 용어로 200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널리 쓰이기 시작해 빠른 속도로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리즘은 사회·문화 현상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패션에서도 표출되고 있는데 바로 맥시멀리즘 패션으로 보여 지고 있다.

둘째, 퓨전 현상을 들 수 있다. 퓨전(fusion)이란 'fuse'에서 파생된 말로 '융해·융해·통합·융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며 이질적인 요소들이 만나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을 뜻한다. 즉,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요소들이 만나 새롭게 재조합되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합주의·하이브리드·크로스오버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절충적 해결 방식이 되고 있는 퓨전문화는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생성된 제3의 문화를 일컫는 이중 교배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제설혼합주의로 표현되기도 하고 A와 B의 만남이 AB가 아닌 C를 꿈꾸는 제3의 산물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⁹⁾ 급변하는 사회의 패션에서도 기존의 개념들이 다양한 요소들과 결합되어 새롭게 재창조 되어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패션에서 형성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 되었다.

셋째, 보보스(Bobos)족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보보스란 부유층을 일컫는 부르조아(Bourgeois)와 중세 유럽시대에 등장한 자유인의 대명사인 보헤미안(Bohemian)의 두 글자를 따서 합성한 신조어로 신혼 엘리트 집안의 라이프스타일을 말하며, 부르주아의 생활방식과 보헤미안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보보스족의 다양

함을 추구하는 성향과 부르주아의 경제적인 면과 보헤미안의 감수성, 정보화 속에서의 방랑과 저항, 그리고 창조성은 패션에서의 맥시멀리즘이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2. 맥시멀리즘의 패션의 표현 유형과 디자인 요소

1) 맥시멀리즘의 패션의 표현 유형

패션을 중심으로 한 예술분야에서 맥시멀리즘 디자인 경향이 어떻게 표현되고 분류되는지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예술 분야의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맥시멀리즘의 유형 분석 조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이미연¹⁰⁾은 맥시멀리즘이란 인간의 감성에 충실하고 과거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경향으로 의복의 여러 요소와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맥시멀리즘의 스타일로서 과장된 장식성의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엘레강스 스타일, 화려한 색시함을 추구하는 글래머 스타일, 전통과 레트로 스타일, 바로크와 로코코 요소를 재배치한 낭만주의적 신바로크 스타일, 보보스 스타일, 키치 스타일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신현숙¹¹⁾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반영하는 최근 패션 트렌드로 맥시멀리즘을 설명하였으며, 맥시멀리즘이 반영된 의상 스타일의 특징은 대담한 꽃문양과 페이즐리 문양, 술 장식, 깃털 장식 등의 히피 룩과 글램 룩 스타일, 다양한 민족적 특징이 보이는 에스닉 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고, 디테일이 두드러지며 과장되거나 비구조적인 실루엣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다.

김호정¹²⁾은 맥시멀리즘 패션은 다문화주의 영향과 다양한 의식의 변화로 생겨난 복식의 형태이며 신체를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여 조형적, 유희적 의미를 띤다고 했다. 또한 맥시멀리즘 스타일은 옛 것을 새롭고 독특하게 표현하고 해석하려는 복고 스타일과 다양한 민족적 특징을 보이는 에스닉 스타일로 표현되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의 혼합과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 매우 기상천외하고 부조화스러운 이미지

로 표현되고 있다고 했다.

명은정¹³⁾은 강렬한 힘으로 분출하는 모든 미적 경향이 그러하듯이 맥시멀리즘 역시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최첨단을 달리던 패션 디자인은 맥시멀리즘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 영역 중 하나였다고 하였다. 패션뿐만 아니라 건축 디자인에서도 맥시멀리즘이 나타나는데, 과잉성과 풍부함, 웅장함, 전통 및 고급문화를 존중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성, 신바로크 경향, 민족적 요소 활용 등이 그 예라고 하겠다.

변혜진¹⁴⁾은 맥시멀리즘이 반영된 의상 스타일의 특징은 다양한 민족적 특징을 보이는 에스닉, 옛 것을 새롭고 독특하게 표현하고 해석하려는 복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로맨틱, 스팅글이나 비즈 등으로 화려하게 반짝이는 글리터링, 과도한 금속장식에 미래적인 느낌이 가미된 퓨처리즘 스타일 등과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고, 디테일이 두드러지며, 과장되거나 비구조적인 실루엣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정연¹⁵⁾은 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맥시멀리즘의 요소들은 여러 정체성의 통합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Multiculture** (다문화적 표현), 서로 다른 요소의 융합으로 나타나는 **Mix & Match** (혼용), 극단적 쏠림현상, 극대화로 인한 **Deformation** (데포르마시옹), 순환과 반복적 트렌드의 흐름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Sensitivity** (감각적 정서)의 4가지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1) 과장성

과장은 일반적으로 물체가 가진 고유의 형태에서 벗어나 확대되었던 것을 말하며, 과장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나타냄을 의미한다.¹⁶⁾

조형예술에서 과장은 조형물의 크기의 확대나 축소, 길이의 연장이나 단축, 면의 확장 등을 의미하며, 형태의 과장은 시각적 흥미로움을 유발하고 새로운 공간의 방향을 제시한다. 즉 대상을 시각적 영상으로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에 따라 미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⁷⁾ 건축에서 과장은 건축물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요소가 공간 속

에서 강조, 변형, 왜곡 등으로 나타나 시각적 흥미로움을 유발시키고 적절한 의미와 특성을 갖는 공간이 형성됨을 뜻한다.¹⁸⁾

복식에 있어서의 과장은 복식의 선과 실루엣이 실제의 인체보다 눈에 띄게 확대되거나 지나치게 왜곡됨을 의미하며, 시각적 인지에서 크고 지나침이 확연히 구분되는 복식이 형태로 공간감과 입체감을 표현한다. 또한 복식의 부분에서 흥미 중심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 강한 욕구의 부위를 지나친 노출이나 과장, 왜곡 등 조형성을 지닌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¹⁹⁾

맥시멀리즘에서 디자인의 조형성은 주로 과장된 디자인을 이용해서 표현된다. 의복에서의 과장성은 화려함과 창조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과장 스타일은 맥시멀리즘 디자인에서 대표적인 표현 특징이 된다. 과감하고 난해한 성격을 띠는 맥시멀리즘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몸의 실루엣에 맞춰 재단한 의상으로는 그 메시지와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의상에 조형적인 요소를 가미해 의상자체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의복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 몸을 축으로 만들어진 어떤 한 주제를 가진 예술 작품으로서 의복이 조형물의 개념까지도 아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로 과장 스타일의 의복은 몸의 전체나, 어느 한 부분을 과장되게 부풀리거나 디테일을 이용해 몸의 실루엣과 상관없는 기이한 조형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2) 멀티 에스닉(Multi Ethnic)

에스닉(Ethnic)이란 라틴어의 'Ethnicus'와 그리스어의 'Ethnikos'에서 유래된 단어²⁰⁾로 에스닉 양식은 인종에 따른 신체적 요인과 시대적인 역사적 요인, 풍습과 전통 등의 문화적 요인, 자연적 요인, 재료, 기법적 요인 등에 따라 민족 집단이나 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며 타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양식이 표현되는 양식²¹⁾이며 고유의 민족적이고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전통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양식²²⁾이다. '에스닉 룩 (Ethnic Look)'은 유럽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과 민속 고유의 염색, 직물, 자수, 아프리카나 잉카의 기하학적인 문양, 인도네시아의 바틱, 인도의 사리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패션 스타일이다.²³⁾ 에스닉 패션은 서구 패션 스타일의 지속적인 반복에 식상하여 새로운 세계, 즉 제3세계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오리엔탈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하와이, 몽고, 중동, 남미 등의 나라에서 영감을 얻은 에스닉의 감성을 표현한 것이다.²⁴⁾

에스닉 패션에 나타난 전통적인 직물의 소재 특징은 수공예 적이고 러스틱한 소재들로 원시적인 직조와 고유한 염색법, 프린트에 의한 소재, 모피나 가죽 등 동물의 스킨소재, 다양한 색상의 실을 사용한 니트, 단순한 기하학적인 패턴의 소재, 컬러풀한 색상배합으로 직조된 체크나 스트라이프 패턴의 직물 등을 들 수 있다.²⁵⁾ 히피적, 보헤미안적, 키치적 요소 등 다양한 이미지와 디자인적 요소가 상호 절충되어 다양한 감성과 시대성을 반영하며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디자이너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과 표현영역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적 트렌드의 반영이기도 하다.²⁶⁾

맥시멀리즘에는 과거로의 회귀, 전통에 대한 고찰 등이 표현된 작품들이 많다. 그 옛스러움에서 따뜻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고 자연적인 색감과 전통 문양을 이용한 장식으로부터 사람들은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고 나아가 새 천년 미래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삭막해져가는 생활을 자연 친화적이고 자유로운 의지로의 회귀 염원이라 보여 진다.

이처럼 맥시멀리즘의 멀티 에스닉은 다문화적 경향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지역의 에스닉이 결합되어 표현되고 있다.

(3) 퓨처리즘(Futurism)

퓨처리즘(Futurism)이란 본래 1910년대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미술사조인 미래파를 의미한다.²⁷⁾ 미래는 언제나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 역시 현재와 상상적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를 나타

낼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²⁸⁾

패션에서 퓨처리즘이란 미래를 소재로 한 패션 디자인으로 테크놀로지 자체를 보여주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테크놀로지를 인간중심의 사고와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퓨처리즘에는 인간의 ‘편안함’, ‘쾌적함’ 즉 활동성과 기능성을 살린 디자인이 가장 포인트가 되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소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활동성을 위한 디자인으로 단순해지고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형 감각이 필요하게 된다.²⁹⁾

현대 패션에 있어서 퓨처리즘은 공상과학영화에서 표현되는 우주복에서와 같이 미래를 소재로 한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의 디자인이나, 코팅, 본딩, 라미네이트 등의 하이테크놀로지로 생산된 인공적인 테크노 소재의 사용으로 기능적이고 첨단적인 이미지의 디자인을 말하며, 스페이스 룩, 코스모코어 룩, 사이버 룩등이 있으며³⁰⁾ 미래를 테마로 한 디자이너들은 인공 소재인 금속성의 광택을 가진 소재를 즐겨 사용하였으며, 대표적인 소재로는 금속, 알루미늄, 우레탄, 형광섬유, 비닐 등이 있다.³¹⁾

퓨처리즘 스타일은 그 재료나 장식성 때문에 맥시멀리즘의 대표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유형 중 하나다. 광택이나 골드, 실버 등을 이용한 소재의 독특함, 기묘한 분위기의 머리 장식이나 몸의 실루엣을 무시한 대담한 조형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색채를 단일화하거나 단순화시킨 형태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눈에 도전적인 미래지향의 메시지를 표출해 낸다.

(4) 엘레강스(Elegance)

엘레강스 스타일은 우아한 귀족적, 상류 계층적 암시에서 근거한 것으로, 세련성, 조화성이 중심적인 미적 가치로 보여지며, 정교하고 조화롭게 조절되고 다듬어진 부드러운 선, 형, 미묘한 색, 빛, 섬세한 재질의 조형적 특성이 나타나는 스타일이다.³²⁾

엘레강스는 성숙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당당하고 위엄있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이다. 이 감성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페미닌(Feminine)한 그룹에 속한다. 페미닌은 ‘여성다움’, ‘여성적인’이라는 뜻으로 엘레강스 감각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³³⁾

엘레강스 스타일 (Elegance Style)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영 엘레강스 스타일 (Young Elegance Style)은 전체적 실루엣의 형태 라인은 상반신은 꼭 맞고 스커트는 여유가 있도록 하는 프린세스를 주로 사용하고, 둘째 스포티 엘레강스 스타일 (sporty Elegance Style)은 웨이스트에 여유가 있는 루스피팅(loose-fitting)으로 H라인을 주로 사용한다. 셋째, 컨템퍼러리 엘레강스 스타일 (Contemporary Elegance Style)은 상의는 아래쪽이 넓고 체형에 딱 맞고 하의로 갈수록 넓게 퍼지며 벨트선은 가로획을 나타내는 A-라인을 주로 사용한다. 넷째, 캐리어 엘레강스 스타일 (Career Elegance Style)은 허리선이 약간 들어간 박스형 스타일로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아래 5~10cm의 길이로 된 샤넬라인을 주로 사용한다. 다섯째, 트래디셔널 엘레강스 스타일 (Traditional Elegance Style)은 어깨에서 스커트까지 벌어진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낸다.³⁴⁾ 이 중 맥시멀리즘의 유형으로 발견된 엘레강스 스타일은 심플한 기존의 엘레강스 이미지를 벗어나 보다 강렬한 색채와 장식으로 섹시미를 더한 캐리어 엘레강스 스타일과 과감한 시도에 도전하는 영 엘레강스 스타일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5) 로맨틱(Romantic)

로맨틱, 즉 낭만적이란 말의 어원은 중세의 로망스(romance)라고 하는 이야기 종류에서 유래된 것으로³⁵⁾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예술상의 경향으로 상상의 비약, 이상에 대한 동경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현실의 세계 및 인생의 이법을 초탈하고자 하는 자유분방한 표현의 하나로 쓰여진다.³⁶⁾

로맨틱은 낭만주의로 일컬어지는 로맨틱시즘 (Romanticism)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로맨틱시즘은 불만족으로부터 파생된 환상으로 그 주제는 비현실적이고 시적인 사랑으로써³⁷⁾ 과거의 현실주의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시도였다. 또한 개성을 존중하고 자아의 해방을 주장하며 상상과 무한적인 것을 동경하는 주관적, 감정적인 태도가 그 거시적인 특색이며³⁸⁾ 로맨틱시즘 경향의 패션은 핑크, 레드 같은 로맨틱 칼라, 또는

화이트, 블랙, 베이지 등의 차분한 색채에 러플과 프릴, 레이스, 코사지, 프린트 등의 여성스러운 디테일로 표현된다.³⁹⁾ 포스트모더니즘은 패션에서 장식성이 강조된 로맨틱시즘 경향의 복식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여성성이 강하게 강조되는 스타일인 로맨틱시즘 패션은 새로운 소재의 이용, 기술의 발달, 이질적이고 이국적인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삭막하고 기계화된 현대사회에 반하여 신비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⁴⁰⁾

20세기에 나타났던 로맨틱한 경향의 패션이 소녀적이고 여성스러운,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표현에만 한정되었다면 21세기의 새로운 로맨틱시즘은 이러한 요소에 미래를 향한 진취적이고 젊은 열정이나 희망 등의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⁴¹⁾하며 보다 과장된 디테일과 장식성을 가미해 그 느낌을 단순히 여성스러운 것에서 나아가 몽환적이면서 강렬한 유희의 느낌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로맨틱 스타일의 유형은 맥시멀리즘의 경향에 잘 부합하며 자유로운 여성성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 맥시멀리즘 패션의 디자인 요소

의복은 선, 형태, 색, 재질, 디테일 등에 대한 개별의 지각이 하나로 통합되어 전체적인 의복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이런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상호 관련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⁴²⁾하며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실루엣
<표 1> 과 같다.
- (2) 소재
<표 2> 과 같다.
- (3) 무늬
<표 3> 과 같다.

〈표 1〉 실루엣

분류	특성 및 종류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허리 부분을 꼭 끼게 하고 상부와 하부는 벌어진 형태. 프린세스(princess)실루엣, 피트 앤 플레어(fit & flare)실루엣, 버슬(bustle)실루엣, 크리놀린(crinoline)실루엣, 머메이드(mermaid)실루엣, 미나렛(minaret)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	수직에 가까워서 몸의 굴곡을 드러내지 않은 직선의 외곽선. 시스(sheath) 실루엣, 박시(boxy)실루엣, 엠파이어(empire) 실루엣, 튜블러(tubular) 실루엣, 시프트(shift) 실루엣, 롱토루소(long torso) 실루엣
벌크 실루엣	허리부분이 풍성하고 상하로 좁아지는 형. 에그(egg) 실루엣, 배럴(barrel) 실루엣, 벌룬(balloon) 실루엣, 텐트(tent) 실루엣, 트라페즈(trapeze) 실루엣

〈표 2〉 소재

분류	특성
hard	힘이 있어서 뻣뻣하게 느낌
soft	부드럽고, 가볍고, 따뜻하고, 유연한 느낌
glittering	반짝이는, 빛나는 느낌
transparent	비치어 보이는 느낌

〈표 3〉 무늬

분류	특성
기하학적	점, 선, 면, 원 등의 기하학적인 모티브를 이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진 것 스트라이프, 체크, 도트
추상적	구체적인 사물이나 기하학적인 형태가 아닌 디자이너의 주관과 감각의 의해 표현된 형태. 그래피티, 옵티컬, 사이키델릭
무지	무늬가 없는 것
사실적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 등의 생물과 자연 현상, 인공의 물체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꽃, 자연, 트로피컬, 동물, 인공물
양식화	대상물의 형태를 간결하게 생략하거나 평면적으로 변화시켜 단순화 한 것

III. 연구방법과 절차

1. 자료 수집

먼저 패션 전문 사이트인 스타일닷컴 (www.style.com)과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컬렉션 작품을 대상으로 맥시멀리즘 경향을 띠는 사진 1000여 장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2차 사진 선별 작업에서는 컬렉션

작품 1000여 장들 중에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 (과장 스타일, 에스닉 스타일, 퓨처리즘 스타일, 엘레강스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과 맥시멀리즘의 디자인 특성 (실루엣, 소재, 무늬, 장식 및 디테일)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한 시즌에 중복되는 디자이너의 제품을 제외하고 선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컬렉션 그림 277장이 최종 선별되었다.

〈표 4〉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 유형과 디자인 요소의 분류와 분석 기준

분류		분석기준
표현 유형	과장성	버슬 또는 크리놀린 등을 이용한 조형성, 회화적 표현, 실험성, 신체 형태를 무시한 실루엣, 화려한 색상, 소재의 혼합
	멀티에스닉	히피/보헤미안적 이미지, Earth colors 사용, 대자연 색감 음양오행 기본색 (백, 흑, 적, 청, 황), 전통 문양, 기하학적인 문양, 동양적 이미지, 프린지 자수, 패치워크 디테일
	퓨처리즘	금속성 소재, 광택, 실버 또는 골드의 단일 색채, 튜브 또는 헤어 장식, 부피감, 드라마틱한 몸의 굴곡 표현, 대담한 조형성
	엘레강스	강렬하고 짙은 색채, 리본 장식, 캐리어 엘레강스 스타일, 영 엘레강스 스타일, 이브닝 드레스 스타일, 성숙하고 섹시한 이미지
	로맨틱	밝은 파스텔 계열 색채, 쉬폰 또는 레이스의 가벼운 소재, 프릴이나 러플 장식, 각테일 드레스 스타일, 어리고 귀여운 이미지
디자인 요소	실루엣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 벌크 실루엣
	소재	hard (딱딱한), soft (부드러운), brilliant (빛나는), transparent (비치는)
	무늬	기하학, 무지, 사실, 추상
	장식 및 디테일	네크라인, 칼라, 소매, 포켓, 프릴, 리본, 비즈 등

2. 분석방법

패션 컬렉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문헌(43,44,45,46)을 참고하였다. 수집된 이미지들은 선행 연구를 참고로 표현 특성을 과장, 에스닉, 퓨처리즘, 엘레강스, 로맨틱으로 분류했고, 디자인 요소를 실루엣, 소재, 무늬, 장식 및 디테일로 분류하였으며 사진의 특성상 명확한 색상을 선별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색상을 제외하여 논의하였다.

사진 추출 작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의상학과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생 7명과 전공교수 1인으로 구성된 의상학 전공자들에 의해 사진 선별 작업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을 위해 컬렉션 사진들과 내셔널브랜드 제품 사진들은 선별 작업에 의해 선정되었다.

표현 유형의 분석 기준과 디자인 요소의 분석 기준은 <표 4>과 같다.

IV. 분석 결과 및 고찰

1.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 유형 출현 빈도와 변화추이

앞의 연구 방법으로 선별된 맥시멀리즘 경향의 작품 이미지들 (컬렉션 이미지 277장)에 나타난 표현 유형 출현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시즌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과장성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4 f/w에서 14개로 가장 많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4년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과장성은 s/s보다 f/w에서 보다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이는 과장성을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이 심플하고 가벼운 s/s 시즌에서 보다 f/w에서 보다 많은 소재와 다양한 장치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멀티에스닉은 2002년과 2003년의 s/s에 각각 11개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는 급감하고 다시 2005년 조금 증가추세를 보이다 그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퓨처리즘과 엘레강스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둘 다

〈표 5〉 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 유형 출현 빈도

표현 특성	연도 시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Total (%)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과장성	2	9	6	5	8	9	1	14	2	4	1	4	3	4			72 (25.99)
멀티 에스닉	2	10	11	4	11	2	1	1	5	5	1	3	0	1			57 (20.58)
퓨처리즘	1	5	2	5	0	6	1	3	2	1	0	6	5	6			43 (15.52)
엘레강스	5	4	4	2	9	1	8	3	3	5	3	3	3	5			58 (20.94)
로맨틱	2	0	4	1	3	2	5	2	5	4	9	1	7	2			47 (16.97)
Total (%)	12 (4.33)	30 (10.83)	27 (9.75)	17 (6.14)	31 (11.19)	20 (7.22)	16 (5.78)	23 (8.30)	17 (6.14)	19 (6.86)	14 (5.05)	17 (6.14)	18 (6.50)	18 (6.50)			277 (100)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퓨처리즘은 s/s시즌보다는 f/w시즌에서 많이 나타나는 반면, 엘레강스는 f/w시즌에서 보다는 s/s시즌에서 더 많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로맨틱은 2005년을 들어서면서 그 증가추세가 확실해지며, 특히 f/w시즌보다 s/s시즌에서 꾸준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2. 맥시멀리즘 패션의 디자인 요소 출현 빈도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디자인 요소인 실루엣, 무늬, 소재, 장식 및 디테일 등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은 2001년부터 꾸준한 빈도로 출현하고 있지만, 2004년과 2007년에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스트레이트 실루엣 또한 같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지만 특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높은 빈도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크 실루엣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그 빈도가 다른 실루엣, 즉 아우어글래스나 스트레이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2004년부터는 급감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무늬가 가장 많이 나타난 이유로는 일단 맥시

멀리즘 경향의 작품에 사용되는 소재나 컬러 자체의 화려함과 반짝임, 원색적인 강렬함이 크고 아름다운 패션 메시지를 충분히 표현하기 때문에 굳이 원단에 다른 무늬가 필요 없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두 번째로 맥시멀리즘 표현에서 추상 무늬가 많이 사용된 이유로는 사실적 표현을 임팩트하게 단순화시킨 추상적 무늬가 여러 가지의 컬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추상적 무늬를 강렬한 컬러를 이용해 마무리하면 그 어떤 무늬보다 더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다.

연도별 소재의 사용을 분석해 보면, hard (딱딱한)한 소재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특히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soft (부드러운) 한 소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높은 빈도를 보였다. Glittering (빛나는) 소재와 transparent (비치는) 소재는 연도에 크게 관계없이 출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4년에 hard (딱딱한) 소재의 출현이 줄고, soft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2004년에는 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이 유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로 꾸준히 맥시멀리즘 패션이 주류를 이루고는 있지만 그런 중에도 유난히 맥시멀리즘적인 요소의 장치가 많이 이용되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

〈표 6〉 맥시멀리즘 패션의 디자인요소별 출현 빈도

연도 디자인요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Total(%)
실루엣	아우어글래스	16	19	20	22	17	12	22	128(46.2)
	스트레이트	12	12	13	9	10	11	5	72(26.0)
	벌크	12	14	18	8	8	8	9	77(27.8)
Total(%)		40 (14.4)	45 (16.2)	51 (18.4)	39 (14.1)	35 (12.6)	31 (11.2)	36 (13.0)	277(100)
무늬	사실	8	1	5	4	8	6	1	33(11.9)
	추상	15	15	19	5	13	3	0	70(25.3)
	무지	8	23	26	23	8	23	25	136(49.1)
	기하학	9	7	0	7	6	2	7	38(13.7)
Total(%)		40 (14.4)	46 (16.6)	50 (18.1)	39 (14.1)	35 (12.6)	34 (12.3)	33 (11.9)	277(100)
소재	hard(딱딱한)	6	21	19	14	12	10	9	91(32.9)
	soft(부드러운)	19	16	21	23	21	19	14	133(48.0)
	glittering (빛나는)	10	5	6	3	2	1	6	33(11.9)
	transparent (비치는)	5	3	4	0	2	1	5	20(7.2)
Total(%)		40 (14.4)	45 (16.2)	50 (18.1)	40 (14.4)	37 (13.4)	31 (11.2)	34 (12.3)	277(100)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유형별 디자인 요소 출현 빈도와 변화추이

실루엣에 있어서 컬렉션에서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128개 (46.21%), 벌크 실루엣 77개 (27.8%), 스트레이트 실루엣 72개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현유형별로 실루엣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먼저 컬렉션에서 사용된 실루엣은 과장성에서는 벌크 실루엣이 아우어글래스 실루엣과 스트레이트 실루엣보다 많이 사용되었으며, 멀티에스닉, 퓨처리즘, 엘레강스에서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이 다른 실루엣에 비해 더 많이 선호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맨틱에서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과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같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무늬에서 무지가 전체 277개 중 136개 (49.10%)를 차지하였다. 이는 무늬가 맥시멀리즘을 표현하는데 결정적인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실루엣이나 소재 등 다른 디자인 요소들의 기여가 더 큰 것을 보여준다.

과장성에는 무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에스닉에서는 추상 무늬가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과장성에는 맥시멀리즘의 디자인 요소인 무늬보다 다른 소재나 장식을 이용하는 기법이 많이 쓰인 듯 하고 멀티에스닉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통 문양이나 추상 그림 등을 작품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스타일들에 비해 추상 무늬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퓨처리즘과 엘레강스에서 또한 무지가 높은 빈도를 띄며, 로맨틱 스타일에서는 사실 무늬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

<표 7>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유형별 디자인요소 출현빈도와 변화추이

표현유형 디자인요소		과장성	멀티에스닉	퓨처리즘	엘레강스	로맨틱	Total(%)
실루엣	아우어글래스	27	25	20	39	17	128(46.21)
	스트레이트	10	18	16	11	17	72(26.0)
	벌크	35	14	7	8	13	77(27.8)
Total(%)		72 (25.99)	57 (20.58)	43 (15.52)	58 (20.94)	47 (16.97)	277(100)
무늬	기하학	14	11	4	7	2	38(13.72)
	무지	40	5	36	37	18	136(49.10)
	사실적	9	1	0	3	20	33(11.91)
	추상	9	40	3	11	7	70(25.27)
Total(%)		72 (25.99)	57 (20.58)	43 (15.52)	58 (20.94)	47 (16.97)	277(100)
소재	hard(딱딱한)	38	25	16	8	4	91(32.9)
	soft(부드러운)	25	21	6	43	38	133(48.0)
	glittering (빛나는)	6	4	16	4	3	33(11.9)
	transparent (비치는)	2	7	5	4	2	20(7.2)
Total(%)		71 (25.6)	57 (20.6)	43 (15.5)	59 (21.3)	47 (17.0)	277(100)

유는 로맨틱에서는 주로 플라워 프린트나 식물, 자연을 표현한 무늬가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사랑스럽고 자연귀화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무늬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

과장 스타일에는 딱딱한 소재가 부드러운 소재보다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딱딱하고 무겁고 어두운 느낌의 소재가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멀티에스닉과 퓨처리즘 또한 딱딱한 소재가 많이 쓰였다. 강렬한 메시지를 위해서는 딱딱한 소재가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반대로 엘레강스와 로맨틱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압도적으로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냈고 있다. 이는 우아하고 화려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딱딱하고 무거운 소재보다는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말해준다. Glittering (빛나는) 소재는 퓨처리즘에 많이 쓰였고 멀티에스닉에는 transparent (비치는) 소재도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반짝이는 광

택이 미래적인 느낌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고, 하늘거리고 얇은 소재가 히피적이고 보헤미안적인 자유로움을 나타내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맥시멀리즘 패션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패션 컬렉션 작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컬렉션 자료들을 추출하여 먼저 맥시멀리즘의 표현 유형과 디자인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 유형과 디자인 요소를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범주화하였다. 맥시멀리즘에 나타난 패션의 표현 특성으로 과장성, 멀티에스닉, 퓨처리즘, 엘레강스, 로맨틱으로 정리하였고, 디자인 요소로 실루엣, 무늬, 소재, 장식 및 디테일로 분류하였다. 실루엣은 아

우어글래스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 벌크 실루엣으로 나뉘고, 무늬는 기하학적무늬, 무지, 사실적 무늬, 추상무늬로 나뉘었다. 소재는 hard (딱딱한), soft (부드러운), glittering (빛나는), transparent (비치는) 소재로 나누었고, 장식 및 디테일은 이미지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된 모든 장식들과 디테일들을 분석했다.

이론적 배경에서 분석한 표현 유형과 디자인 요소 연구를 근거로 컬렉션 자료를 분류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컬렉션 그림 277장을 각각의 표현유형, 실루엣, 소재, 무늬, 장식 및 디테일, 연도 및 시즌을 분석한 뒤, 빈도를 알아보고 그 변화 추이를 밝혔다.

연구 결과 및 고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컬렉션에서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유형을 조사한 결과, 과장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엘레강스, 멀티에스닉, 로맨틱, 퓨처리즘 순으로 나타났다. 컬렉션에서 맥시멀리즘을 표현하기 위해 크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장성이 가장 효과적인 표현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과장성은 2001년부터 꾸준한 빈도로 출현하고 있으며, s/s 시즌보다 f/w 시즌에 보다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다. 로맨틱은 2005년 이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둘째, 맥시멀리즘 패션의 디자인 요소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먼저 실루엣에 있어서 컬렉션에서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벌크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 순으로 나타났고, 무늬는 무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무늬를 사용하는 것이 맥시멀리즘 패션의 디자인 특성 중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소재를 살펴보았다. 소재는 soft (부드러운)한 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딱딱하거나 빛나는 소재 또한 많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맥시멀리즘의 표현 유형별 디자인 요소의 출현 빈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현유형별 실루엣은 과장성에서는 벌크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고, 멀티 에스닉, 퓨처리즘, 엘레강스에서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이 많이 선보였다. 무늬에서는 모든 유형이 무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재에서는 과장성과 멀티에스닉, 퓨처리즘에 딱딱한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반대로 엘레강스와 로맨틱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많이 쓰였다.

현대 패션의 가장 화려한 경향이라고 보여지는 맥시멀리즘 패션은 앞으로도 우리의 패션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고 다른 디자인 분야나 우리의 생활에도 그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1) Pamela Golbin, (2001). *Fashion Designers*. New York: Watson-Guptill Publications, p.225.
- 2) 이효진 (2003). 현대복식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연구. *복식문화연구* 11(2), p.276.
- 3) 김옥동 (1992).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 pp.14~19.
- 4) 김호정, 김순자 (2005). 현대패션에서의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6), pp.883-895
- 5) 두산동아. 자료출처 <http://www.doosandong.com>
- 6) 박은경 (2008).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에 관한 연구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58(3), p.3.
- 7) 이미연 (2007). 국내패션 브랜드 상품에 전개된 이국적 이미지의 유형 -2001년 이후 여성복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3.
- 8) 김정연 (2006). 맥시멀리즘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 9) Fusion in Design: east meets west, <월간디자인>. 2002. 2. p.124.
- 10) 이미연 (2007). Op. cit., pp.53-55.
- 11) 신현숙 (2001). 패션 트렌드에 대한 국내 여성 소비자의 수용 현황과 수요 분석 (1998~2001년 트렌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3.
- 12) 김호정 (2005).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2, p.74.
- 13) 명은정 (2005). Mix & Match 스타일의 표현

- 경향에 관한 연구 -‘낮설게 하기’의 현대적 표현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49.
- 14) 변혜진 (2006). 21세기 맥시멀 룩 (Maximal Look)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4.
 - 15) 김정연 (2006). Op. cit., pp. 24-27.
 - 16) 디자인 사전 (2000). The Dictionary of Contemporary Design. 안그래픽스.
 - 17) 김정연 (2006). Op. cit., p.13.
 - 18) 이현숙 (1999). 현대패션에 나타난 부조적 조형미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
 - 19) 이수진 (2003). 패션에 표현된 변형에 관한 연구 -과장에 의한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 20) Berenice Geoffroy-Schneither (2001). *Ethnic style: History and Fashion*. Assouline, p.21
 - 21) 김지연 (1999). 에스닉 양식(Ethnic style)에 의한 텍스타일 디자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22) 황경희 (2002). 인도 에스닉 이미지 텍스타일 디자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23) 이재정, 박은경 (2004).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서울: 도서출판 예경, p.158.
 - 24) 김보영 (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Mix & Match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1.
 - 25) 김영현, 양취경 (2005). 현대패션의 로맨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55(1)*, p.8.
 - 26) 김영현 · 양취경 (2005). 현대패션의 로맨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55(1)*, p.7.
 - 27) Rosemary Lambert, 김찬규역 (1991). *20세기의 미술*. 서울: 도서출판 예경, p.26.
 - 28) 박주현 (1999). 공상 과학 영화에 나타난 복식 이미지.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
 - 29) 양혜정 (2000). 20세기 패션에 표현된 퓨처리즘과 그 응용 -테크노 소재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9.
 - 30) 오선희, 박화순 (1994). *의상디자인*. 서울: 경춘사, p.224.
 - 31) 변혜진 (2006). Op. cit., p.24.
 - 32) 고현진 (2003). 복식에 표현된 엘레강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89.
 - 33) 김미경 (2003). 모델의 이미지 연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1.
 - 34) 이정훈 (2003). 현대 패션스타일을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연구: 엘레강스 스타일을 중심으로.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6.
 - 35) 김현숙, 김혜련 (1998). *예술과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201.
 - 36) 김영현 (2004). 현대패션의 로맨틱 이미지에 표현된 소재 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
 - 37) 이영숙 (2001). *발레와 복식문화사*. 서울: 형설, p.209.
 - 38) 미술도서 출판 위원회 (1994). *미술 인명 용어사전* 서울: 우림. p.98.
 - 39) 한수연 (2005). 현대패션에 표현된 글래머 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97.
 - 40) 이경아 (2003). 로맨틱시즘 복식의 양식.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7.
 - 41) 구민정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스레티시즘의 미적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 42) 김유진, 이경희 (2000).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7)*. p.977.
 - 43) 김영자 (2003). *실무를위한 패션디자인* 서울: 경춘사, pp.41~43.
 - 44) 김은경, 김옥경, 한지영 (2000). *현대생활속의 패션* 서울: 학문사, p.26.
 - 45) 이경순, 김희섭 (1998).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pp.180~182.
 - 46) 변혜진 (2006). 21세기 맥시멀 룩 (Maximal Look)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